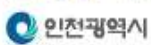
		<b>보 도 자 료</b>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
		배포일자	2021년 2월 17일(수) 총 3매	
담당 부서	육아지원과	담당자	• 출산지원담당 이지영 ☎440-3221 • 담당자 윤선영 ☎440-3222	
<b>사진</b>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<b>참고자료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<b>보 도 일 시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**인천시가 한의약 난임 치료를 도와드립니다**  
**- 지난해 보다 100명 늘어난 250명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-**  
**- 2.17일부터 관할 보건소에 신청, 선정되면 3개월간 한의약 치료 -**

- 인천시가 난임으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 치료를 돕는다.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올해 난임 부부 250명을 대상으로 「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지원대상을 지난해 150명보다 100명을 늘려 보다 많은 난임 부부가 한의약 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.
- 신청자격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사람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의 여성이다. 주 1회 이상 지정 한의원에 내원이 가능하고, 치료(한약 복용) 기간 동안 양방 난임 시술을 받지 않아야 한다.

- 지원대상자 신청은 2월 17일부터 접수하며, 지원을 원하는 난임 부부는 최근 5년 이내의 난임진단서,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, 정액검사결과지를 지참해 소재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.
-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위원회를 열어 난임 검사결과 및 남성 배우자의 난임 등 기저질환을 심사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되며, 250명이 모두 선정되면 신청·접수를 마감한다.
-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동안 한의약 치료(1인당 120만원)를 시행하고, 치료 종료 후 3개월의 추적관찰을 실시하게 된다.
- 한편, 인천시 난임 진단자는 2015년 1만2천여 명에서 2019년 1만3천여 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. 또한, 출생아 수는 2015년 25,491명에서 지난해에는 16,24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.
-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이번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소중한 아이를 건강하게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 며, “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인천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” 고 밝혔다.

< 참고 > 인천시 난임 진단자 및 출생아 수 추이

**참고****인천시 난임 진단자 및 출생아 수 추이**☐ 연도별 난임 진단자 추이

연 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전 국(명)	220,762	222,911	215,174	231,859	228,803
인천광역시(명)	12,874	13,172	12,736	13,755	13,720

☐ 연도별 출생아 수 추이[인천광역시]

연 도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
인천광역시(명)	25,491	23,609	20,445	20,087	18,522	16,240